

우상혁 “파리올림픽 금메달 따겠다”



우상혁이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2m35로 2위 한국 육상에 세계선수권대회 첫 은메달 선물 ‘새 역사’

한국 육상에 첫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선물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로 2위에 오른 뒤 AP통신 영상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기분이 정말 좋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2m37을 뚫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신(31·카타르)에게 넘긴 ‘금메달’을 다음 메이저 대회에서는 꼭 목에 걸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우상혁은 “또 세계선수권, 올림픽이 남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는 ‘더 역사적인 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대한육상연맹을 통해서서는 아쉬운 순간도 돌아봤다.

그는 “2m33에서 3차 시기까지 가는 등 경기 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아쉽다”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 바신의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을 인정한다”고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바신을 예우했다.

이날 우상혁은 2m19, 2m24, 2m27, 2m3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3 1, 2차 시기에서 실패 위기에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자세로 바를 넘었다.

우상혁은 2m35도 2차 시기에 넘어 은메달을 확보했다.

바신이 1차 시기에 2m37을 성공하자, 1차 시기에서 2m37에 실패한 우상혁은 바를 2m39로 높이 ‘역전’에 도전했다.

하지만, 아쉽게 두 번의 시도에서 2m39에 막혔다.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우상혁은 ‘KOREA’가 적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 뒤, 겨우겨우 세리머니를 했다.

한국 선수 중 실의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km 경보의 김현섭(2011년 대구 동메달),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우상혁이 높은 벽을 경쾌하게 넘어지면서, 한국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한국인 최초 메달리스트 김현섭은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km 경보 결선에서 1시간21분17초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후 도핑 재검사에서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된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3위로 올라섰다.

세계육상연맹은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진행 중이던 2019년 10월 1일 뒤늦게 김현섭에게 동메달을 전달했다.

유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경기 뒤 곧바로 우상혁에게 메달을 전달해 우승 세리머니를 하게 했고 ‘간이 시상식’도 열었다.



우상혁이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식 메달 세리머니’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열린다.

우상혁의 말처럼 ‘더 역사적인 날’을 만들 기회는 연말이 찾아온다.

2021년 도쿄올림픽,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 이어 내년에는 3월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이 예정돼 있다.

다.

2024년 7월에는 파리올림픽이 개막하고, 2025년에는 도쿄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현역 최고 점퍼’ 바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우상혁에게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는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있다. /연합뉴스

KIA 후반기 숙제 1·2군 ‘동반 상승’ 퓨처스리그 14연패 늪에 빠져

KIA 타이거즈가 ‘동반 상승’이라는 후반기 숙제를 안았다.

지난 14일 LG 트윈스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소화했던 KIA 선수들이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후반기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4년 만의 ‘가을 잔치’를 위해 스파이크 끈을 다시 조여 맨 1군 선수단. 퓨처스 선수단은 하루 먼저 움직였다.

13일 상무야구단과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렀던 2군은 14일 훈련 뒤 3일간의 휴식을 보냈다. 그리고 18일 다시 소집돼 훈련을 재개했다.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KIA에는 ‘동반 상승’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18승 8패의 뜨거운 5월을 보냈던 KIA는 6·7월 14승 1무 18패로 뒷걸음질 쳤다. 한때 8연패까지 빼졌던 KIA, 2군도 동시에 패배를 쌓아갔다.

2군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13일 상무전에 5-8로 지면서 14연패의 늪에 빠졌다.

7월 진행된 10경기에서 모두 패한 KIA의 가장 최근 승리는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KIA는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2회 무사 1:3루서 나온 류승현의 결승타를 잘 지키면서 4-1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후 14경기에서 KIA는 모두 패배를 남겼다. 선발진과 내야가 동시에 붕괴했다.

14연패를 하는 동안 5회를 채운 선발투수가 없다. 14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투수가 책임진 이날

은 39.2이닝, 자책점은 77점에 이른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무려 17.47이다.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1군에서 말소된 뒤 2군 경기에서 나선 윤중현(2.2이닝 5실점), 부상 회복 후 점점 무대에 나선 선 놀린(1.2이닝 2실점)을 빼고도 선발진의 이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졸 신인’ 김찬민, 황동하, 강병우로 겨우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강이준, 김정민, 김도현 등도 선발로 나섰다.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경쟁을 했던 이민우가 트레이드로 한화로 이적했고, 장민기와 김현수는 시즌 중반 군 복무를 위해 팀을 떠났다. 선발 자원 부재로 사실상 ‘첫 번째 투수’로 경기를 꾸려가고 있는 모양새다.

선발 싸움에서 밀리는 KIA는 내야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

얇은 선수층에 부상 선수까지 더해지면서 내야 구성도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수 자원들이 내야에 배치되는 숫자 못할 상황들도 연출되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였던 상무와의 2연전에서

도 이를 연속 3명의 포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김선우가 3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섰다, 이정훈은 4번 타자 겸 포수, 신명승은 7번 타자 겸 2루수였다. 13일에는 신명승이 2번타자에서 2루수가 됐고, 전날 3루수로 나선 김선우가 포수 마스크를 썼다. 이정훈은 1루수로 출전했다.

후반기 부상병들의 가세로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노리는 1군 상황과 달리 2군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1군 질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탄탄한 2군이다.

KIA는 올 시즌 감독, 단장 그리고 대표 이사까지 모두 교체하면서 ‘정상 도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약점 보완, 최고의 경기력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었다.

14연패라는 성적보다 내용이 더 우려되는 2군 상황이다. 바닥부터 다지면서 ‘동반 상승’의 후반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타 산실 K리그 유스 챔피언십 금호고·광양제철고 등 참가

‘스타 탄생 무대’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한여름에 펼쳐지는 K리그 유소년 선수들의 축구 축제인 ‘2022 GROUND.N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 지난 16일 개막해 열전을 이어가고 있다.

28일까지 13일간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FC U18 금호고와 전남드래곤즈U18 광양제철고 등 K리그 전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고등부 대회인 K리그 U18, U17 챔피언십에 가장 눈길을 쫓는다.

23개팀이 참가한 U18 챔피언십은 총 6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거치고 16강 토너먼트를 벌인다. 저학년 대회인 U17 챔피언십의 경우 6개 조가 조별리그를 치르고 8강 토너먼트를 거치게 된다.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K리그 유망주들을 미리 만나보는 무대로 꼽힌다.

광주FC의 공격의 핵심인 엄지성도 챔피언십의 빛나는 스타였다.

엄지성은 2019년 금호고 재학 당시 저학년(17세)이었지만 U18 대회에 참가해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5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우수선수상을 받은 김주성(김천 상무)도 2019년 FC서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꾸준한 활약으로 동아시아컵 대표에도 발탁됐다.

한편 금호고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시즌 3관왕에 도전한다. 광민석(MF)은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금호고의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광민석은 드리블 능력과 날카로운 슈팅이 장점이다.

2년 선배 엄지성은 “불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지능이 뛰어나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빠져나가는 장점이 있다”고 광민석을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제펜싱연맹 트위터에 올라온 송세라 우승 축하 이미지. /연합뉴스

송세라, 에페 ‘금메달’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송세라(29·부산시청)가 한국 선수로는 20년 만에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에페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다.

송세라는 19일(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결승전에서 알렉산드라 은들로(독일)를 11-10으로 따돌려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송세라는 2002년 현희 이후 20년 만에 자 사상 두 번째로 한국 펜싱에 세계선수권대회 에페 종목 금메달을 안긴 선수가 됐다. 에페 종목 입상은 2015년 남자부 정승화의 동메달 이후 7년 만이다.

전 종목을 통틀어 한국 여자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도 현희에 이어 송세라가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 멤버인 송세라는 올해 2월 바르셀로나 월드컵 금메달, 카이로 국제그랑프리대회 동메달 등 국제 무대 개인전에서 상승세를 타 오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을 냈다.

한편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직전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오상욱(대전시청)이 8강전에서 이울리안 테오도시우(루마니아)에게 14-15로 패해 고배를 들었다. 오상욱은 최종 5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